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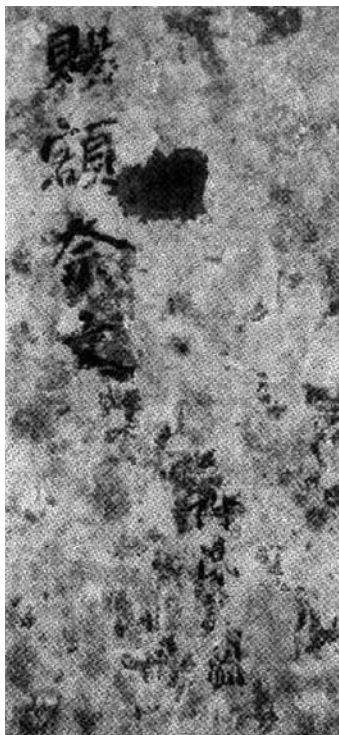
서부권

곰팡이 슨 서산대사 유물

해남 대흥사내 전시관 항균·항습 시설 全無

일부 문서 판독불가...정선사가록 등 훼손 심각

해남 대흥사에 보관된 조선 중기의 고승인 서산대사 휴정(休靜·1520~1604)의 귀중한 유물 중 일부가 심하게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조 임금에 내린 '사액제문 표지'에 푸른곰팡이가 슬어 글자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다.

조사한 결과 훼손 상태가 예상보다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훼손이 심각한 유물은 전시관에 내걸렸던 정조 임금에 내린 '사액제문 표지'로 푸른곰팡이가 슬어

글자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다. 특히 문화재청이 최근 국가지정 문화재인 보물로 지정한 서산대사 행초 정선사가록(西山大師 行草精選四家錄) 표지도 벌레가 갉아 먹는 등 상당히 훼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선사가록은 서산대사가 중국 송대의 선문(禪門)을 대표하는 마조(馬祖)·백장(百丈)·황벽(黃檗)·임제(臨濟)의 법문을 초록한 서첩이다.

서산대사 진설도(陳設圖) 및 제물 단자(祭物單子), 경초 임금이 직접 글을 짓고 손수 글을 써 대흥사로 내려 보낸 화상당명(畫像堂銘) 등도 알록이 저 흉하게 훼손된 상태라고 대흥사 측은 밝혔다.

법가 스님은 "온난화로 기온이 3℃ 이상 상승하면서 열악한 시설에 전시된 유물 등 문서류에 푸른 곰팡이가 슬고 좀 등 벌레가 갉아 먹어 훼손 상태가 심각하다"면서 "유물은 일단 항온 항습장치가 있는 수장고로 옮긴 상태로 복원 작업을 거쳐 새로 짓는 박물관에 전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대흥사는 전체면적 1386㎡, 지상 2층 3개 동으로 구성된 상보박물관을 내년 4월 개관 예정으로 신축 중이다. 항온 항습 시스템 등 첨단시설을 갖춘 이 박물관이 개관하면 학예연구사를 두고 체계적인 전시와 과학적인 보존에 온 힘을 쏟을 계획이다.

서부취재본부=박희경기자 dia@

목마른 노화·보길도

완도 섬 가뭄 장기화...상수원 바닥 급수중단 우려

노화도와 보길도 등 완도 섬지역이 가뭄 장기화로 극심한 식수난을 겪고 있다. 20일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계속된 가뭄으로 갈수록 강우량이 최근 3년 대비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보길 상수원지의 저수율이 3%대까지 떨어져 보길도와 노화도 2200여 세대 주민들이 '10일 단수 4일 급수'라는 제한급수로 불편을 겪

고 있다. 바닥을 드러낸 상수원지의 저수율은 1만여㎡로, 조만간 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 급수중단 사태마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완도군은 식수난에 시달리고 있는 노화도, 보길도 주민들을 위해 비상급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완도군은 하루 급수량 1642t 가운데 800t을 부항천에서 확보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마을상수도 제

한급수로 해결하고 있다.

노화도와 보길면에 비상급수차량 10여 대를 확보해 인근 대형관정에서 고지대 수용가까지 운반급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5개 대형관정을 보수해 하루 760t의 추가급수를 확보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협조를 받아 1.8ℓ 들이 생수 3000병을 고지대 수용가에게 지원했으며 2차로 5000여 병을 추가 요청해 놓은 상태다.

완도군 관계자는 "가뭄이 지속될 것에 대비해 보조 취수원 개발과 누수탐사 등 식수 확보를 위한 중장기 계획도 추진할 것"이라며 "힘든 시기 인만큼 물 절약에 주민들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전남농협 노화도에 생수 전달

전남농협지역본부가 20일 최악의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는 완도군 노화읍과 보길도 지역 주민들에게 구제에서 생산되는 '지리산 천연생수' 21t, 45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완도군은 지난해 10월부터 가뭄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노화도 지역은 식수를 공급하는 보길 상수원의 저수율이 4%를 밑돌아 식수난을 겪고 있다.

전남농협 임직원들은 물부족으로 고통받는 완도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최근 자발적으로 생수를 모았다. 서부취재본부=jwpark@kwangju.co.kr



바다가 춤춘다... 추억이 흐른다

목포시, 바다 분수 평일 공연 재개

목포의 명물로 자리잡은 춤춘 바다는 바다 분수 공연이 평일에도 재개됐다. 목포시는 시민과 관광업계의 요청으로 지난 19일부터 예외적 경보 발령이 해제될 때까지 매일 2회(오후 8시, 8시 40분)씩 바다 분수를 가동하

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바다 분수는 정부의 에너지 위기 극복 경보발령 이후 지난해 11월 3일부터 평일에는 운영하지 않고 주말에만 2회 공연해 왔다. 지난 한 해 104일 304회 공연을 통

해 50만명이 바다 분수를 관람했고 올해도 4월 현재 32회 공연에 1만 9000여명이 다녀갔다. 135억원(국비 68억원, 시비 67억원)이 투입된 바다 분수는 세계 최초의 초대형 부유식 해상 분수로 수반 길이 150m, 분사 높이 30~70m 규모로 환상적인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다는 평가다.

서부취재본부=임영춘기자 lyc@

영암군 장학회 지급 확대 소년소녀 가장 등에 기회

영암군 공민장학회가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까지 장학금을 확대하는 등 수혜의 폭을 넓히고 있다.

영암군민장학회는 지난 19일 정기총회를 갖고 조손가정세대와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추가로 장학금을 확대 지급하고 중학교생 이상 우수학생에게는 해외 문화탐방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확대 지급 원칙을 처음으로 적용해 올해 대학에 입학한 한 부모가족 자녀 7명과 가정위탁아동 4명 등 총 11명에게 각각 100만원씩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영암군민장학회는 또 내년부터 성적 향상 학생과 영재고급 졸업생 장학금, 초등생 영어경시대회 수상자 해외체험 등도 실시기로 했다.

출발 4년만에 40억원의 기금을 모은 영암군민장학회는 2009년부터 우수대학 입학생과 재학생 30여명에 대해 5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지역인재 육성에 앞장서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이삼휴기자 lsh@

섬 주민들 "고마워요 목포경찰"

외교·미용·수리 등 찾아가는 서비스 호평

목포경찰이 찾아가는 치안서비스인 '해피 아일랜드'로 주목받고 있다.

목포경찰서는 지난 15일 신안군 압해면 가란도를 찾아 도서지역에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했다. 해피 아일랜드팀은 각종 민원상담 및 정보통신서비스팀으로 구성된 경찰관 11명, 신안군 보건소 무료 의료팀 7명, 미용 협회 3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경찰력이 미치지 않고 복지에 취약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현장 치안활동을 펼쳤다.

해피 아일랜드 서비스를 통해 33명의 각종 민원 및 애로사항을 상담했고, 35명의 주민에게 일반진료, 21명의 도서민에게 이·미용서비스를 선사하고 컴퓨터 및 전화선 수리 등을 실시하는 등 도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줬다. 마을 이장 김모(남·79)씨는 "교통도 불편한데 먼 곳까지 와서 주민들의 진료와 이발, 애로사항을 들어줘서 고맙다"며 "컴퓨터와 전화기가 고장이 나도 수리를 의뢰하기 힘든데

다시 한번 꼭 찾아와 주라"고 말했다. 주민 호응에 따라 목포경찰서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봉사단체 등과 연계해 경찰관이 상주하지 않는 도서 주민들을 위해 해피 아일랜드 치안서비스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서부취재본부=dss6116@kwangju.co.kr

진도 울금 발효식품 시설 준공

진도군에 전국 최고의 현대식 진도 울금 발효식품 가공시설이 들어섰다. 20일 진도군에 따르면 이날 지난번 담당리에서 이동진 군수를 비롯한 기관단체, 울금농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도울금 전통발효식품 가공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진도울금발효식품 가공시설은 국비 등 4억2000만원을 투입해 울금 세척시설과 저온창고, 작업장, 기계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하루 1650ℓ의

발효 울금을 생산할 수 있다. 진도군은 공장 준공으로 울금의 약리효능을 이용한 건강 기능성 전통발효제품 개발과 저비용의 자체 생산시설로 비용 절감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발효울금 제품 자동차 생산라인 설비 운영으로 기존 OEM에 의한 연간 임가공료 7800만원 상당의 절감 효과와 12.6ha의 계약재배로 소득증대 효과를 비롯해 연간 1400여 명의



일자리 창출도 예상된다. 진도군은 ▲친환경 울금 재배단지 체험 ▲울금 해수탕 ▲울금발효 엑사차·식초 ▲울금 막걸리, 울금빙자·고추장 테마 체험장 조성 등 전국 제일의 울금 중심 지역으로 특색화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park@

부동산 경제 전문회사 ASSET KOREA since 2005.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062-236-3400.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제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제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무계산서 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 명도 / 정확한 권리분석 / 최상의 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꼼꼼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을 추천합니다.

유통과 자산매각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블로터드 그랜드 호텔. 대지 683평, 건물 2148평(지하12층 지상10층), 감정가액 80억원, 매매가액 45억원(협의후결정). 광주유통몰 허미스포텍. 대지 4073평, 건물 12943평(지하3층 지상12층), 감정가액 516억원, 매매가액 160억원(시세비동, 협의후결정). 남원공장. 대지 2460평, 건물 1013평, 감정가액 21억원, 매매가액 12억원(협의후결정). 군산시 바이오 디젤공장. 대지 10000평, 건물 1976평, 감정가액 9944천, 매매가액 55억원(협의후결정). 해남 땅골로도. 대지 284평, 건물 2654평(지하1층 지상3층), 감정가액 83억원, 매매가액 35억원(협의후결정). 전주 노송병원. 대지 548평, 건물 2209평, 감정가액 75억원(지하3층 지상5층), 매매가액 40억원(협의후결정).

현대공인중개사 토지 매매. 자연녹지(물류창고, 공장지정) 광산구비아동, 비아 IC에서 5분거리, 11,463㎡(3,468평) 3.3㎡당 70만원. 계획관리지역 (물류창고, 공장기타용도가능) 광산구 송학동, 나주 IC에서 3분거리, 21,914㎡(6,630평) 매매가 22억. 계획관리지역 (전원주택, 연수원, 공장, 창고, 투자, 기타) 광산구 양동, 용성지동차 학원인근, 28,845㎡(8,726평) 대지 94400평, 건축물 있음, 매매가 13억원. 준주거지역 (병원, 사옥, 임대용상가건물신축부지적합) 화정동, 광산도리번, 지하철역부근 대지1,520㎡(460평) 3.3㎡당 300만원. 수익성 좋은 상가건물 매매. 풍암동, 지상6층건물, 보증금1억2천만원 월820만원 매매가13억5천만원. 용봉동 지상4층 보증금2억2천 월810만원 매매가13억. 수익성 좋은 다가구 주택. 회정동, 4층건물, 원룸10실, 투룸3실, 쓰리룸2실, 4층 본인 거주 보증금9천 월400만원 매매가5억8천만원. 공장 건물 매도. 광산구 우산동, 광주공항 인근 대지2,975㎡(900평) 건평 594.5㎡(180평) 매매가8억. <대구> 수익성 좋은 상가건물, 토지. 본 광고물건은 전속 계약된 물건임. *유통과 자산매각은 유통회사서 유입부동산이나 경제실태조사 등 물건을 매수인에게 좀더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하는 절차입니다. 전문상담 ☎ 010-7570-7525. T. 062)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지점 www.85858949.co.kr

토지 매매. 위치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대지 : 4,000평. 건물 : 650평. 전 : 9,500평. 합계 : 13,500평. 매매가 : 협의 후 결정. 광주 ~ 무안 고속도로(나주 IC 입구). 광주에서 8분거리. 길잡이공인중개사. 상표등록 : 41-0163369호. 한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기원 공원사거리)